

인천정유, 주유소 상표 만들까 말까?

현대정유 계약기간 만료 ... Sinochem 협상완료까지 임시상표 사용계획

중국 국영기업 Sinochem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정유가 주유소 유통망의 독자상표 개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천정유에 따르면, 그동안 현대Oil-Bank의 상표를 이용해 자사 계열 주유소를 운영해왔으나 6월 말로 상표 사용 계약기간이 끝나 새 상표 개발 여부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유는 1999년 주유소 판매망이었던 한화에너지프라자를 현대Oil-Bank에 매각한 뒤 현대Oil-Bank로 상표를 바꾼 기존 한화에너지프라자 계열의 900여개 주유소와 자사 계열의 150여개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2002년 6월 현대Oil-Bank가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정유와의 원유 공급계약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인천정유는 대부분의 판매유통망을 잃고 생산공장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6월 말로 상표사용 기한도 종료됨으로써 현대Oil-Bank 상표를 달고 영업해 온 150여개의 자사 계열 주유소의 상표도 바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인천정유와 Sinochem과의 매각이 이르면 9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상표 제작을 위해 개발비용을 투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인천정유가 Sinochem에 매각되면 당연히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한 상표를 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현대Oil-Bank에 Sinochem과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상표사용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대Oil-Bank로부터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정유는 “현재로서는 현대Oil-Bank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입장도 통보받지 못해 새 상표 개발 계획이 어정쩡한 상태이고, 현대Oil-Bank의 통보만을 기다릴 수 없어 새로 계약하는 주유소에는 <경인에너지>라는 임시 상표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02>